

‘12년 동안 통큰 기부’ 장성 북이면 김요현 이장

2006년부터 매년 쌀 기탁…직접 배달하며 애로사항 해결까지



장성군 북이면에 12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인적으로 쌀을 기부한 이장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북이면 김요현 이장협의회장(70세, 복릉마을). 김요현 이장은 지난달 13일 북이면사무소에 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백미 20포(20kg)를 전해왔다.

2006년 겨울부터 매년 잊지 않

고 쌀을 기증해 온 김 이장의 신행은 12년간 계속되고 있다.

김 이장은 무거운 쌀을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전달하고 이웃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사 역할도 자처하며 적극 나서고, 본업인 택시를 운행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비를 받지 않고 모셔다 드리는 선행을 꾸준히 베풀고 있

장성=반정모 기자

또한 10년간 마을대표를 맡아온 김 이장은 2017년부터 북이면 이장협의회장을 맡으면서 북이면 전체 주민 살피기를 내일처럼 해오고 있다.

쌀을 전달 받은 한 어르신은 “김 회장 덕분에 쌀 걱정 없이 지내고 있다”며 “매년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들여 도움 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10년 넘게 한결같이 도움을 주고 있어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요현 이장협의회장은 “어려운 주민들을 부모님과 형제라 생각하며 쌀을 기증해 있는데 오랜 기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다”며 “나의 작은 도움이 이웃들에게 큰 보탬이 돼 내가 더욱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이면사무소는 기증된 쌀을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등 쌀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해 가구당 1포씩 전달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순천대 김행운 교수, 세계 인명사전 동시 등재

마르퀴즈 후즈 후·국제인명센터 4년 연속 등재



순천대 학교(총장 박진성)는 웰빙자원학과 김행운 교수는 국제인명센터(ICB) 2018년 판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동시 등재됐다고 밝혔다.

김행운 교수는 마늘 인삼 등 농업유전자원의 초자연동물보존 기술개발과 안전장기보존 실용화 업적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국제저온생물학회(SLTB)의 학술지인 *GryoLetter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0여 편의 SCI 논문을 게재했다.

2012년부터는 모교인 순천대에 재직하며, 한본(寒蘭) 등 우리나라 별종위기 고유식물종과 국제코코넛

유전자원네트워크(COGENT)의 코코넛 유전자원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 미국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인명기관으로 ‘후즈 후 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국제인명센터(ICB)는 유럽의 대표적 인명기관으로 ‘국제인명사전(Dictionary of International Biography)’를 발간한다.

이 두 발간물은 미국인명연구소(ABI)의 ‘올해의 인물(International Man of the Year)’과 함께 세계3대 인명사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The Marquis Who's Who)’와

국제인명센터(ICB) 2018년 판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동시 등재됐다고 밝혔다.

김행운 교수는 마늘 인삼 등 농업유전자원의 초자연동물보존 기술개발과 안전장기보존 실용화 업적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국제저온생물학회(SLTB)의 학술지인 *GryoLetter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0여 편의 SCI 논문을 게재했다.

2012년부터는 모교인 순천대에 재직하며, 한본(寒蘭) 등 우리나라 별종위기 고유식물종과 국제코코넛

유전자원네트워크(COGENT)의 코코넛 유전자원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 미국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인명기관으로 ‘후즈 후 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국제인명센터(ICB)는 유럽의 대표적 인명기관으로 ‘국제인명사전(Dictionary of International Biography)’를 발간한다.

이 두 발간물은 미국인명연구소(ABI)의 ‘올해의 인물(International Man of the Year)’과 함께 세계3대 인명사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The Marquis Who's Who)’와

국제인명센터(ICB) 2018년 판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동시 등재됐다고 밝혔다.

김행운 교수는 마늘 인삼 등 농업유전자원의 초자연동물보존 기술개발과 안전장기보존 실용화 업적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국제저온생물학회(SLTB)의 학술지인 *GryoLetter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0여 편의 SCI 논문을 게재했다.

2012년부터는 모교인 순천대에 재직하며, 한본(寒蘭) 등 우리나라 별종위기 고유식물종과 국제코코넛

유전자원네트워크(COGENT)의 코코넛 유전자원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 미국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인명기관으로 ‘후즈 후 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국제인명센터(ICB)는 유럽의 대표적 인명기관으로 ‘국제인명사전(Dictionary of International Biography)’를 발간한다.

이 두 발간물은 미국인명연구소(ABI)의 ‘올해의 인물(International Man of the Year)’과 함께 세계3대 인명사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국제인명센터(ICB) 2018년 판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동시 등재됐다고 밝혔다.

김행운 교수는 마늘 인삼 등 농업유전자원의 초자연동물보존 기술개발과 안전장기보존 실용화 업적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국제저온생물학회(SLTB)의 학술지인 *GryoLetter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0여 편의 SCI 논문을 게재했다.

2012년부터는 모교인 순천대에 재직하며, 한본(寒蘭) 등 우리나라 별종위기 고유식물종과 국제코코넛

유전자원네트워크(COGENT)의 코코넛 유전자원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 미국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인명기관으로 ‘후즈 후 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국제인명센터(ICB)는 유럽의 대표적 인명기관으로 ‘국제인명사전(Dictionary of International Biography)’를 발간한다.

이 두 발간물은 미국인명연구소(ABI)의 ‘올해의 인물(International Man of the Year)’과 함께 세계3대 인명사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국제인명센터(ICB) 2018년 판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동시 등재됐다고 밝혔다.

김행운 교수는 마늘 인삼 등 농업유전자원의 초자연동물보존 기술개발과 안전장기보존 실용화 업적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국제저온생물학회(SLTB)의 학술지인 *GryoLetter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0여 편의 SCI 논문을 게재했다.

2012년부터는 모교인 순천대에 재직하며, 한본(寒蘭) 등 우리나라 별종위기 고유식물종과 국제코코넛

유전자원네트워크(COGENT)의 코코넛 유전자원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 미국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인명기관으로 ‘후즈 후 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국제인명센터(ICB)는 유럽의 대표적 인명기관으로 ‘국제인명사전(Dictionary of International Biography)’를 발간한다.

이 두 발간물은 미국인명연구소(ABI)의 ‘올해의 인물(International Man of the Year)’과 함께 세계3대 인명사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국제인명센터(ICB) 2018년 판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동시 등재됐다고 밝혔다.

김행운 교수는 마늘 인삼 등 농업유전자원의 초자연동물보존 기술개발과 안전장기보존 실용화 업적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국제저온생물학회(SLTB)의 학술지인 *GryoLetter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0여 편의 SCI 논문을 게재했다.

2012년부터는 모교인 순천대에 재직하며, 한본(寒蘭) 등 우리나라 별종위기 고유식물종과 국제코코넛

유전자원네트워크(COGENT)의 코코넛 유전자원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 미국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인명기관으로 ‘후즈 후 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국제인명센터(ICB)는 유럽의 대표적 인명기관으로 ‘국제인명사전(Dictionary of International Biography)’를 발간한다.

이 두 발간물은 미국인명연구소(ABI)의 ‘올해의 인물(International Man of the Year)’과 함께 세계3대 인명사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국제인명센터(ICB) 2018년 판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동시 등재됐다고 밝혔다.

김행운 교수는 마늘 인삼 등 농업유전자원의 초자연동물보존 기술개발과 안전장기보존 실용화 업적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국제저온생물학회(SLTB)의 학술지인 *GryoLetter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0여 편의 SCI 논문을 게재했다.

2012년부터는 모교인 순천대에 재직하며, 한본(寒蘭) 등 우리나라 별종위기 고유식물종과 국제코코넛

유전자원네트워크(COGENT)의 코코넛 유전자원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 미국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인명기관으로 ‘후즈 후 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국제인명센터(ICB)는 유럽의 대표적 인명기관으로 ‘국제인명사전(Dictionary of International Biography)’를 발간한다.

이 두 발간물은 미국인명연구소(ABI)의 ‘올해의 인물(International Man of the Year)’과 함께 세계3대 인명사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국제인명센터(ICB) 2018년 판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동시 등재됐다고 밝혔다.

김행운 교수는 마늘 인삼 등 농업유전자원의 초자연동물보존 기술개발과 안전장기보존 실용화 업적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국제저온생물학회(SLTB)의 학술지인 *GryoLetter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0여 편의 SCI 논문을 게재했다.

2012년부터는 모교인 순천대에 재직하며, 한본(寒蘭) 등 우리나라 별종위기 고유식물종과 국제코코넛

유전자원네트워크(COGENT)의 코코넛 유전자원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 미국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인명기관으로 ‘후즈 후 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국제인명센터(ICB)는 유럽의 대표적 인명기관으로 ‘국제인명사전(Dictionary of International Biography)’를 발간한다.

이 두 발간물은 미국인명연구소(ABI)의 ‘올해의 인물(International Man of the Year)’과 함께 세계3대 인명사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국제인명센터(ICB) 2018년 판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동시 등재됐다고 밝혔다.

김행운 교수는 마늘 인삼 등 농업유전자원의 초자연동물보존 기술개발과 안전장기보존 실용화 업적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국제저온생물학회(SLTB)의 학술지인 *GryoLetter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0여 편의 SCI 논문을 게재했다.

2012년부터는 모교인 순천대에 재직하며, 한본(寒蘭) 등 우리나라 별종위기 고유식물종과 국제코코넛

유전자원네트워크(COGENT)의 코코넛 유전자원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 미국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인명기관으로 ‘후즈 후 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국제인명센터(ICB)는 유럽의 대표적 인명기관으로 ‘국제인명사전(Dictionary of International Biography)’를 발간한다.

이 두 발간물은 미국인명연구소(ABI)의 ‘올해의 인물(International Man of the Year)’과 함께 세계3대 인명사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국제인명센터(ICB) 2018년 판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동시 등재됐다고 밝혔다.

김행운 교수는 마늘 인삼 등 농업유전자원의 초자연동물보존 기술개발과 안전장기보존 실용화 업적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국제저온생물학회(SLTB)의 학술지인 *GryoLetter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0여 편의 SCI 논문을 게재했다.

2012년부터는 모교인 순천대에 재직하며, 한본(寒蘭) 등 우리나라 별종위기 고유식물종과 국제코코넛

유전자원네트워크(COGENT)의 코코넛 유전자원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 미국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인명기관으로 ‘후즈 후 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국제인명센터(ICB)는 유럽의 대표적 인명기관으로 ‘국제인명사전(Dictionary of International Biography)’를 발간한다.

이 두 발간물은 미국인명연구소(ABI)의 ‘올해의 인물(International Man of the Year)’과 함께 세계3대 인명사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국제인명센터(ICB) 2018년 판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동시 등재됐다고 밝혔다.

김행운 교수는 마늘 인삼 등 농업유전자원의 초자연동물보존 기술개발과 안전장기보존 실용화 업적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국제저온생물학회(SLTB)의 학술지인 *GryoLetter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0여 편의 SCI 논문을 게재했다.

2012년부터는 모교인 순천대에 재직하며, 한본(寒蘭) 등 우리나라 별종위기 고유식물종과 국제코코넛

유전자원네트워크(COGENT)의 코코넛 유전자원 동결보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